

세계유산과 우리나라 문화유산과의 비교

權 三 允

(歷史旅行 · 文明批評家)

목 차

- I. 세계유산시대의 개막
- II. 세계문화유산의 다양성

- III. 세계문화유산 속의 우리 문화유산

I. 세계유산시대의 개막

1995년 12월 8일 베르린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석굴암과 불국사(일괄 유산), 팔만대장경과 판전, 종묘 등 3점의 우리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세계유산리스트'에 정식 등록시켰다. 이로써 우리 문화재는 국경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격상되었고, 우리 또한 뒤늦게나마 '세계유산시대'를 맞게 되었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지정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인류의 유산 가운데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 및 문화유산을 자연적 · 인위적 파괴와 손상으로부터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2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유산협약은 일정 회원국의 비준을 얻은 1975년 발효되었고, 그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행에 옮길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유산기금이 설치되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세계유산 지정작업으로 지금(1997년 9월)까지 총 506점이 세계유산 리스트에 올려졌다. 이중 자연유산이 107점, 문화유산이 380점, 자연유산이면서 문화유산인 복합유산이 19점이다.

한편,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점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데 이어 1997년 12월 나폴리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연차총회에서 창덕궁과 화성(수원) 등 2점의 우리 문화재를 추가로 세계유산리스트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나라는 5점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II. 세계문화유산의 다양성

세계문화유산의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다양하다. 지금('97년 10월)까지 세계유산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복합유산을 포함하여 399점. 1점 이상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는 94개국에 이른다(각국 보유현황표 참조).

여기에는 이스탄불과 같이 구(舊)시가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헨 대성당처럼 단일 교회건축물도 있다. 또 우리의 석굴암(정식 명칭은 석불사(石佛寺))과 불국사와 같이 둘 이상의 문화재가 하나의 유산으로 지정된 '일괄유산'이란 것도 있다. 대표적인 일괄유산으로 이집트의 누비아 유적군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부심벨 신전, 필레 신전 등 모두 22점의 신전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유산의 제작(또는 축조)시기를 살펴보더라도 1만7천년전의 선사(先史)유적인 라스코 동굴벽화유적이 있는가 하면, 1945년 원자폭탄 투하를 기념하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처럼 역사가 겨우 50년 남짓된 것도 있다.

또 해발 3천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쿠스코 유적이 있는 반면, 라파누이 섬처럼 南태평양의 절해고도(絶海孤島)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를 행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유네스코는 물론 권위있는 기관도 이를 작성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세계57개국 120여점의 세계문화유산을 답사한 경험과 유네스코가 발간한 각종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 ① 선사고고(先史考古)유적
- ② 신앙(信仰)유적
- ③ 고고학적(考古學的)발굴지
- ④ 혈거생활(穴居生活)유적
- ⑤ 도시(都市)유적
- ⑥ 종교건축물(宗教建築物)
- ⑦ 기념물(紀念物)
- ⑧ 궁전(宮殿)
- ⑨ 성벽(城壁)
- ⑩ 묘(墓)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은 도시 전체 또는 일괄 유산이 많은데다, 단일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하나의 범주로 한정시키기가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피렌체는 역사도시이지만 그 속에 있는 두오모(대성당)는 종교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유산이 갖는 주된 성결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하되 한가지 범주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은 그 다면성을 고려하여 다른 분류에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사고고유적

文明발생 이전의 인류의 생활상 또는 삶의 흔적을 알려주는 문화유적으로 여기에는 동

굴벽화 유적, 바위그림(岩刻畵) 유적, 거석(巨石)기념물유적, 선사주거 유적, 원인(原人) 발굴지 등이 포함된다.

1) 동굴벽화유적으로는 초식(草食)동물들이 주로 그려져있는 1만7천년전의 라스코동굴(Lascaux, 프랑스)과 이와 비슷한 유형인 알타미라 동굴(Altamira, 스페인), 그리고 남미(南美) 최고(最古)의 주거지로서 동굴벽화가 남아있는 세라 다 카피바라 국립공원(Serra da Capivara, 브라질)등이 있다.

2) 동굴벽화보다 후대의 미술형태인 바위그림 유적으로는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바위벽면에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그려져 있는 타실리 나제르(Tassili n'Ajjer, 알제리)와 타드라르트 아카쿠스(Tadrart Acacus, 리비아), 알프스 남쪽의 거대한 바위그림 공원인 발 카모니카(Val Camonica,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알타(Alta, 노르웨이)와 타눔(Tanum, 스웨덴), 북미(北美)대륙의 시에라 데 산프란시스코(Sierra de San Francisco, 멕시코),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카카두 국립공원(Kakadu, 호주) 등이 있다.

3) 거석문화유적으로는 환상열석(環狀列石)유적인 스톤헨지(Stonehenge, 영국), 7점의 거석신전이 일괄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몰타 거석신전군(Megalithic Temples in Malta, 몰타), 유럽최대의 선사거석예술의 보고인 보인 유적군(Archaeological Ensemble of the Bend of Boyne, 아일랜드), 압오리진 원주민들의 거석기념물이 남아있는 울루루 카타 튜타 국립공원(Ururu-Kata Tjuta, 호주) 등이 있다.

4) 선사주거유적으로는 반창(Ban Chiang, 태국), 바트·알쿠흘·알아인(Bat, Al-Khutm & Al-Ayn, 오만), 카호키아 마운드 역사유적(Cahokia Mounds, 미국)가 있으며

5) 원시생활 유적으로는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뉴질랜드-마우리족), 헤드 스매시드인 버팔로 점프 컴플렉스(Head-Smashed-in Buffalo Jump Complex, 캐나다-북미 원주민)가 있고,

6) 원인(原人)발굴지로는 주구점(周口店)(중국, 북경원인(北京原人)), 상기란 유적지(Sangiran Early Man Site 인도네시아)가 있으며,

7) 화석(化石) 및 고생물학(古生物學)관련 유적으로는 윌란드라 호수(Willandra, 호주), 아와시 저지대(Awash, 이디오피아), 오모 저지대(Omo, 이디오피아), 메셀 피트 화석 유적지(Messel Pit, 독일), 리오 아비세오 국립공원(Rio Abiseo, 페루) 등이 있다.

2. 신앙유적

신앙유적이란 신탁(神託), 제사(祭祠), 조상숭배 등의 신앙의례가 베풀어졌던 신전 또는 성소 등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탁을 구했던 델피 신전(Delphi, 그리스),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고 풍요를 기원했던 파포스 신전(Paphos, 사이프러스), 조상들의 영력(靈力)을 구하기 위해 세운 모아이(moai) 유적이 있는 라피누이(Rapa Nui, 칠레), 콘나락의 태양의 신전

(Sun Temple of Konarak, 인도), 아폴로 신의 성소였던 델로스 섬(Delos, 그리스), 태양과 치료의 신을 숭배했던 아폴로 에피쿠리우스 신전(Appollo Epicurius, 그리스), 아테나 여신과 승리의 신 나이키를 모신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Acropolis, 그리스), 제우스 신전이 있으며 올림픽제전 경기가 열렸던 올림피아(Olympia, 그리스),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라(Ra)와 아몬신을 섬겼던 고대도시 테베(Thebes, 이집트), 그리고 누비아 유적군(Nubia Monuments, 이집트), 중국 역대황제들이 봉선(封禪) 의례를 행하던 태산(泰山)(중국), 조선조 역대왕의 사당인 종묘(宗廟)(한국) 그리고 일본의 이츠쿠시마(엄도(嚴島))신사(神社)(일본), 바라몬교의 시바 사원인 마하발리푸람(Mahabalipuram 인도), 고대 엘람 왕국의 종교도시 유적 초가잠빌(Choga Zambil, 이란), 태양신을 섬겼던 고대 종교도시 바알베크(Baalbek, 레바논), 불교 · 힌두 사원들이 모여있는 카트만두 계곡(Kathmandu, 네팔), 태양 · 달 · 뱀 등을 섬기기 위해 세운 피라미드 도시인 티칼(Tikal, 과테말라)과 코판(Copan, 온두라스) 팔렌케(Palenque, 멕시코),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멕시코), 몬테알반(Monte Alban, 멕시코), 치첸이차(Chichen Itza, 멕시코), 옥스말(Uxmal, 멕시코) 그리고 엘 타힌(El Tajin, 멕시코), 세계 최대의 지상그림이 있는 나스카(Nasca, 페루), 北안데스 지역의 종교문화를 보여주는 거석조각이 있는 산 아우구스티넨 고고학공원(San Augustin, 콜롬비아) 등이 있다.

3. 고고학적 발굴지

고고학적 발굴지란 과거 한 시대의 문명이나 문화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적으로서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7세기 초 화산폭발로 묻혔다가 최근 그 모습을 드러낸 中美의 고대도시 유적인 호야 데 케렌(Joya de Ceren, 엘살바도르)과 폼페이(Pompeii, 이탈리아), 그리고 흙벽돌(adobe) 도시유적인 찬찬(Chan Chan, 페루), 신전과 인물석상이 발견된 차빈(Chavin, 페루), 이베리아 반도의 로마유적인 메리다의 로마유적군(Archaeological Ensemble of Merida, 스페인) 중세 바이킹의 상업도시유적인 비르카 · 호브가르덴(Birka Hovgarden, 스웨덴), 고대 이디오피아의 문자가 새겨진 비문이 발견된 티야(Tiya, 이디오피아), 마야식 비문의 보고 퀴리구아(Quirigua, 과테말라), 옛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베르기나(Vergina, 그리스), 그리스식 극장이 남아있는 에피다우루스(Epidauros, 그리스), 올림픽 제전경기가 벌어졌던 올림피아(Olympia, 그리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하투사(Hattusha, 터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4. 혈거생활유적지

선사 동굴벽화가 그려져있는 라스코 동굴(프랑스)과 알타미라 동굴(스페인)을 비롯하여 푸에블로 인디언의 도시유적인 메사 베르데(Mesa Verde, 미국), 박해를 피해 지하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괴뢰메 일대의 카파도키아 지방(Göreme Natural Park & Cappadocia, 터키), 지형의 특이성을 살려 독특한 주거양식을 개발한 이 사시 디 마테라(I Sassi di Matera, 이탈리아), 아프리카 도곤족의 혈거생활 주거지이자 묘지였던 반디아가라(Bandia-gara, 말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5. 도시유적

세계문화유산에서 도시유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는 어떤 특정 건축물이나 기념물보다는 건축물과 가로(街路) 등 도시환경을 망라하여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화유산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이를 보존코자하는 유네스코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도시유적은 그 성격상 1) 순수한 의미에서의 도시유적(City Ruins 또는 Old City), 2) 역사가 오랜 도시이면서 옛 도시공간을 지금도 여전히 삶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역사도시(Historic City), 3) 광산도시(Mine city), 4) 전통취락지(Old Settlements) 5) 실험도시(Experimental City) 등으로 나눌수 있다.

1) 순수 도시 유적으로는 인더스 문명 유적인 모엔조다로(Moenjodaro, 파키스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의식용(儀式用)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이란), 이집트 中·新王國시대의 왕도(王都) 테베(Thebes- 지금의 룩소르, 이집트), 치무 왕국의 수도 찬찬(Chan Chan, 페루), 잉카 왕국의 도읍지였던 쿠스코(Cuzco, 페루)와 마추피추(Machu Picchu, 페루),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인들의 항구도시 비블로스(Byblos, 레바논)와 티르(Tyre, 레바논), 에게해의 고도 로도스(Rhodos, 그리스)와 미스트라스(Mystras, 그리스), 中東사막속의 캐라반 도시였던 하트라(Hatra, 이라크)와 팔미라(Palmyra 시리아) 그리고 페트라(Petra, 요르단), 페니키아인들의 식민도시(植民都市) 카르타고(Carthage, 튀니지)와 케르쿠안네(Kerkouane, 튀니지), 사브라타(Sabratha, 리비아) 그리고 티파사(Tipasa, 알제리), 로마의 식민도시 보스라(Bosra, 시리아)와 팀가드(Timgad, 알제리), 제밀라(Djemila, 알제리), 렙티스 마그나(Leptis Magna, 리비아) 그리고 바알벡(Baalbek, 레바논), 그리스 식민도시인 네세바르(Nessebar, 불가리아)와 시렌느(Cyrene, 리비아) 그리고 부트린티(Butrinti, 알바니아), 사하라 최고(最古)의 도시인 가다메스(Ghadames, 리비아), 중세 이슬람 도시인 카이루안(Kairouan, 튀니지)과 스스(Sousse, 튀니지), 베니 함마드(Beni Hammad, 알제리), 엠자브 계곡(M'Zab Valley, 알제리), 자비드(Zabid, 예멘), 안자(Anjar, 레바논) 그리고 부하라(Bukhara, 우즈베키스탄), 중세 유럽도시인 비첸사(Vicenza, 이탈리아)와 자모츠(Zamosc, 폴란드), 카케레스(Caceres, 스페인), 산 지미냐노(San Gimignano, 이탈리아), 스타리 라스 · 소포카니(Stari Ras & Sopotani, 유고), 코토르(Kotor, 유고) 그리고 라우마(Rauma, 핀란드), 순례자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스페인), 한자(Hanse)도시 동맹의 도시 비스비(Visby, 스웨덴),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 스페인 · 포르투갈 식민도시 구안나후아토(Guanajuato, 멕시코)와 모렐리아(Morelia, 멕시코), 사카테카스(Zacatecas, 멕시코), 카르타헤나(Cartagena, 콜롬비아) 그리고 산타크루스 데 몸폭스(Santa Cruz de Mompos, 콜롬비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중심도시 올린다(Olinda, 브라질)와 살바도르 데 바이야(Salvador de Bahia, 브라질), 바이킹이 세운 도시 랑스 오 메도우(L'Anse aux Meadows, 캐나다), 영국 식민도시 룬넨부르크(Lunenburg, 캐나다), 아프리카 중세도시 파실게비(Fasil Ghebbi, 이디오피아)와 아크숨(Aksum, 이디오피아) 그리고 그레이트 짐바브웨(Great Zimbabwe, 짐바브웨), 노예무역항 고레섬(Goree, 세네갈), 사하라 황금수송 중심도시 젠네(Djenne, 말리), 불교 성도(聖都)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스리랑카)와 칸디(Kandy, 스리랑카), 스리랑카

의 고대도시 폴론나루와(Polonnaruwa)와 시기리야(Sigiriya) 그리고 갈레(Galle), 모골 제국의 왕도(王都) 파테푸르 시크리(Patehpur Sikri, 인도), 중세 태국의 왕도였던 수코 타이(Sukhothai)와 아유타야(Ayutthaya) 등이 있다.

2) 역사도시로는 먼저 도시 역사 4천년을 자랑하는 다마스쿠스(Damascus, 시리아)와 알레포(Aleppo, 시리아)를 꼽아야 한다. 이들은 지금은 모두 전형적인 이슬람도시로 남아있다. 다음으로는 로마(Rome, 이탈리아)다. '영원한 도시'란 별명을 갖고 있다. 이어서 2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폴리(Napoli, 이탈리아)와 1,500년간 왕도(王都)였던 이스탄불(Istanbul, 터키)를 들 수 있다. 또 로마 식민도시로 성장한 바스(Bath, 영국)도 있다.

유럽의 중세(中世)도시로서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 크로아티아), 아비뇽(Avignon, 프랑스), 베니스(Venice, 이탈리아), 피렌체(firenze, 이탈리아), 라벤나(Ravenna, 이탈리아), 페라라(Ferrara, 이탈리아), 시엔나(Siena, 이탈리아), 바티칸(Vatican, 바티칸), 피엔사(Pienza, 이탈리아), 룩셈부르크(Luxembourg, 룩셈부르크), 빌니우스(Vilnius, 리투아니아), 크라코우(Cracow, 폴란드), 바르샤바(Warsaw, 폴란드), 에보라(Evora, 포르투갈), 톨레도(Toledo, 스페인), 아빌라(Avila, 스페인), 코르도바(Cordoba, 스페인), 세비야(Seville, 스페인), 세고비아(Segovia, 스페인), 살라망카(Salamanca, 스페인) 베른(Berne, 스위스), 에덴버러(Edinburgh, 영국), 잘쯔부르크(Salzburg, 오스트리아), 뤼벡(Lübeck, 독일), 고슬라르(Goslar, 독일), 밤베르크(Bamberg, 독일), 퀘들링부르크(Quedlingburg, 독일), 부다페스트(Budapest, 헝가리), 프라하(Praha, 체코), 텔치(Telc, 체코), 체스키 크룸로프(Cesky Krumlov, 체코), 오희리드(Ohrid, 마케도니아),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프랑스), 파리(Paris, 프랑스), 발레타(Valleta, 몰타), 브리젠(Bryggen, 노르웨이), 성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러시아) 등이 있다.

이슬람 사회에는 '메디나'(Medina)라 부르는 독특한 도시구조를 가진 전통도시가 있다. 이들은 대개 역사도시로서 여기에서는 페스(Fez,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 모로코), 튀니스(Tunis, 튀니지), 알지에(Algiers, 알제리) 등이 있으며, 아랍·이슬람의 고도(古都)로는 사나(Sanaa, 예멘)와 이스파한(Isfahan, 이란) 그리고 카이로의 이슬람 지구(Islamic Cairo, 이집트), 팀북투(Timbuktu, 말리) 등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도시로는 리마(Lima, 페루), 수크레(Sucre, 볼리비아), 아바나(Havana, 쿠바), 트리니다드·데스 인헤니오스 계곡(Trinidad & the Valley des Ingenios, 쿠바), 안티구아(Antigua, 과테말라), 멕시코시티(Mexico City, 멕시코), 오아하카(Oaxaca, 멕시코), 푸에블라(Puebla, 멕시코), 콜로니아 델 사크라멘토(Colonia del Sacramento, 우루과이), 퀘벡(Quebec 캐나다) 등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모잠빅 섬(Island of Mozambique, 모잠빅)을 들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교토(京都),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 등이 역사도시의 범주에 든다.

3) 광산도시로는 뢰로스(Røros, 노르웨이, 동(銅)), 비에리츠카(Wieliczka, 폴란드, 소금), 엔겔스베르그(Engelsberg, 스웨덴, 철), 아이언브리지 고지(Iron Bridge Gorge, 영국, 석탄), 악 에 스냥 왕립소금광산(Royal Saltworks of Arc-et-Senans, 프랑스), 램멜스베르크(Rammelsberg, 독일), 벨클링겐 철광산(Völklingen Iron Works, 독일), 반스카 스티아브니카(Banska Stiavnika, 슬로바키아), 우로 프레토(Ouro Preto, 브라질, 금), 포토시(Potosi, 볼리비아) 등이 포함된다.

4) 전통 취락지란 다수의 전통건물이 남아 있거나 문화조경(Cultural Landscape) 유적지, 전통민속적 요소가 도시나 건축에 잘 나타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이한 흙벽돌(adobe) 건축물을 자랑하는 푸에블로 인디안 마을 타오스(Taos, 미국), 돌지붕 가옥마을인 알베로벨로(Alberobello, 이탈리아), 흙 · 돌 · 나무 · 짚 등으로 만든 아산티 전통 건축물군(Ashanti Traditional buildings, 가나), 흙벽돌로 지은 건물 벽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모로코의 아도베 도시 아이트 벤 하도우(Ait-Ben-Haddou), 전통 목조건축물 보존지구인 블코리네크(Vlkolinec, 슬로바키아), 전통 농촌 마을 홀로콰(Hollokö, 헝가리), 아메리칸 인디안 거주지역인 안소니 섬(Anthony Island, 캐나다)과 차코(Chaco, 미국), 사막속의 오아시스 마을 이찬 칼라(Itchan Kala, 우즈베키스탄), 오토만시대의 목조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산프란볼루(Sanfranbolu, 터키), 러시아의 목조 건축물군인 키지 포고스트(Kizhi Pogost), 네델란드인들의 물과의 전쟁상을 보여주는 쇼클란드(Schokland, 네델란드), 일본의 전통 산촌(山村)인 사라가와 · 고카야마(Shira-Kawa & Gokayama), 문화조경의 현장인 코르디예라스 계단식 논(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s Cordilleras, 필리핀)과 전통 종교시설과 자연을 조화시킨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뉴질랜드) 등이 있다.

5) 실험도시란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도시가 계획되고 건설된 非역사도시를 말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수도로 건설된 브라질리아(Brazilia, 브라질), 산업 노동자들을 위해 설계 · 건설된 크레스피 다다(Crespi d'Adda, 이탈리아), 다양한 건축양식과 정원 · 공원을 접목시킨 신트라(Sintra, 포르투갈), 건축가 가우디가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기풍을 불러넣은 바르셀로나(Parue Güell, Palacio Güell, & Casa Mila in Barcelona, 스페인), 20세기 공원묘지인 스코그스키르코가르텐(Skogskyrkogarden, 스웨덴) 등이 있다.

6. 종교건축물

인간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여 있는 종교건축물은 그 어느 건축물보다 수명이 길고, 또 최고의 장식미와 웅장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 시대 인간정신의 최고 수준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양식의 실험은 대개 종교건축에서 이루어졌다. 유럽이 특히 그랬다. 그래서 유럽 건축사는 교회 건축사의 확대판이랄 수 있다.

종교건축물은 그 거너축물이 속한 종교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관

련 건축물이 단연 대종을 이룬다.

1) 대성당 건축물은 중부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건축양식을 보면 고딕, 네오 고딕, 르네상스, 로코코, 로마네스크, 바로크 등 한때 유럽을 풍미했던 건축양식들이 다 망라되고 있으며 무데하르 양식처럼 더러 토착 건축양식(스페인)과 혼용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건축재료면에서도 석재(石材)가 압도하고 있으나 벽돌, 또는 목재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동굴교회도 있고, 유럽 열강이 해외 식민지로 개척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도 유럽 전통양식의 교회 건축물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고딕양식의 성당으로는 샤프트르 대성당(Chartres Cathedral, 프랑스), 아미앵 대성당(Amiens 프랑스), 라임의 노트르담 대성당(Notre-Dame, 프랑스), 부르주 대

성당(Bourges, 프랑스), 부르고스 대성당(Burgos, 스페인), 쾰른 대성당(Cologne, 독일), 로스킬데 대성당(Roskilde, 덴마크), 제레나 호라의 성 요한 네포묵 교회(Church of St. John of Nepomuk at Zelena Hora, 체코), 더햄 대성당(Durham,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영국) 등을 꼽을 수 있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는 바티칸(Vatican, 이탈리아)의 시스틴 대성당, 생 사뵁 쉬르 가템프 교회(Saint Sarvin sur Gartempe, 프랑스), 스페이엘 대성당(Speyer, 독일), 성 메리 대성당(St. Mary's 독일), 아스투리아스 왕국 교회건축물군(Churches of the kingdom of the Asturias, 스페인) 등이 있으며, 로코코 양식으로는 봄 예수스 도 콘고나스 교회(Bom Jesus do Congonas, 브라질), 비에스 순례자 교회(Wies, 독일) 등이 있고 바로크 양식으로는 필리핀 바로크 양식 교회군(Baroque Churches of the Philippines),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용된 캔터버리 대성당(Canterbury, 영국),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접합된 페테예베시 루터란 교회(Petäjävesi, 핀란드), 중세 이탈리아 대성당 건축물로는 피렌체(Firenze)의 두오모(Duomo)와 피사(Pisa)의 두오모를 들 수 있고, 바이킹 전통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결합된 우르네스 목조 교회(Urnes Stave Church, 노르웨이), 이디오피아의 중세 동굴교회인 랄리벨라 교회(Laliela), 이집트 최고(最古)의 교회인 아부 메나(Abu Mena), 요새형의 비에르탕 교회(Biertan and its Fortified Church, 루마니아), 목재 천막형 지붕을 가진 콜로멘스코예 예수승천 교회(Church of the Ascension at Kolomenskoye 러시아), 중세 그루지아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므츠크타 교회(Mtskheta, 그루지아)와 바그라티 대성당(Bagrati, 그루지아), 8각 바실리카 형태의 아헨 대성당(Aachen, 독일), 레오나르도 다 비니치의 '최후의 만찬'이 보관되어 있는 산타 마리아텔레 그라치에 교회(Church & Dominican Convent of Santa Maria delle Grazie, 이탈리아)가 있고, 프레스코 성화로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는 보야나 교회(Boyana, 불가리아), 이바노보 교회(Ivanovo, 불가리아), 트루도스 교회군(Troodos, 사이프러스), 몰다비아 교회군(Churches of Moldavia, 루마니아), 괴레메 동굴교회(Göreme National Park & the Rock Sites of Cappadocia, 터키) 등이 있으며, 신대륙에 세워진 예수회 전도소로는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데 파라나 예수회 전도소(Jesuit Missions of La Santissima Trinidad de Parana, 파라과이)와 파라니스 밀림 전도소(Guaranis, 아르헨티나·브라질), 치키토스 예수회 전도소(Chiquitos, 볼리비아) 그리고 포르투갈 정복자가 인도에 세운 고아 대성당(Goa) 등이 있다.

2) 성당이나 교회와는 달리 외딴 벽지에 세워지는 기독교 건축물로 수도원(Monastery)이 있다. 수도원에서는 예배공간과 숙소공간이 핵이 되고, 수도사들의 자족자급을 위한 간단한 작업공간과 방앗간시설들이 딸려있다. 중심이 되는 예배공간은 대개 대성당과 같이 당대를 풍미했던 건축양식으로 축조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몽 생 미셸 수도원(Mont-Saint-Michel, 프랑스, 고딕양식, 베네딕트 수도회), 폰트네이 수도원(Fontenay, 프랑스, 시토 수도회), 베제라이 수도원(Vezelay 프랑스, 로마네스크 양식, 베네딕트 수도회), 로쉬 수도원(Lorsch, 독일), 마울브론 수도원(Maulbronn, 독일, 로마네스크+고딕양식, 시토 수도회), 생갈 수도원(Saint Gall, 스위스, 바로크 양식), 뮈스타이크 성 요한 수도원(Convent of Saint John at Münstair, 스위스, 로마네스크 양식, 베네딕트 수도회), 판논할마 수도원(The Millenary

Benedictine Abbey of Pannonhalma, 헝가리, 베네딕트 수도회), 릴라 수도원(Rila, 불가리아, 네오 비잔틴 양식, 불가리아정교회), 아토스 수도원(Athos, 그리스 그리스정교회), 메테오라 수도원(Meteora, 그리스, 그리스정교회), 다프니 수도원(Daphni, 그리스, 그리스정교회), 호레수 수도원(Horezu, 루마니아, 브라코반 양식), 트리니티 세르기우스 수도원(Trinity Sergius Lavra in Sergiev Posad, 러시아, 러시아정교회), 제르니모스 수도원(Hieronymites, 포르투갈, 마누엘 양식, 제르니모 수도회), 바탈라(Batalha, 포르투갈, 마누엘 양식, 도미니카 수도회), 토마르 수도원(Tomar, 포르투갈, 마누엘 양식, 예수회 기사단), 알코바사 수도원(Alcobaca, 포르투갈, 고딕 양식, 시토 수도회), 에스쿠리알 수도원(Escorial, 스페인), 포브레트 수도원(Poblet, 스페인, 시토 수도회), 산타마리아 과달루페 왕립 수도원(Santa Maria de Guadalupe, 스페인), 포포카테페틀레 수도원(Popocatepetle, 멕시코, 정복초기 건축양식), 그리고 파운틴 수도원(Fountains, 영국), 하그파트 수도원(Haghpat, 아르메니아) 등이 있다.

3) 이슬람 종교건축물

이슬람은 7세기 등장하여그후 지금의 中東과 북아프리카, 동남아 일대로 확대되었다. 이슬람 종교건축물은 예배의 공간인 모스크(mosque)가 주축이 되고 미나렛(minaret)이라 부르는 첨탑(尖塔)과 회랑 등이 이에 부수된다, 이슬람 종교건축물은 이같은 공간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형되고 또 그 장식성도 달라졌다.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된 이슬람 종교건축물은 쿠틀브 미나르(Qutb Minar, 인도)와 디브리기 대모스크(Great Mosque of Divrigi, 터키) 등 극히 소수다. 그러나 이슬람 지역의 역사도시들이 대개 모스크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또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도시 속에 감추어진 모스크를 찾아내면 그 내용은 아주 풍부해진다. 사실 이슬람 종교 건축물의 걸작은 이 역사도시 안에 있다.

특이한 청색 바탕에 잔잔한 식물문양이 새겨져 있어 '天上의 세계'를 떠 올리게 하는 이스

파한(Esfahan, 이란)의 이맘 모스크와 로트플라 모스크, 현존 이슬람 최대·최고(最古)의 모스크인 다마스쿠스(Damascus, 시리아)의 우마이야 모스크, 40m 높이의 미나렛을 자랑하는 알레포(Aleppo, 시리아)의 대모스크, 카이로 이슬람지구(Islamic Cairo)에 있는 이븐 툴룬모스크와 무하마드 알리 모스크, 술탄 하산 모스크,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도(王都)인 이스탄불(Istanbul, 터키)의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파티 모스크, 뉴 모스크, 모로코의 이슬람 도시 페스(Fez)의 알 가라윈 모스크와 알 안달루스 모스크, 마라케시(Marrakesh, 모로코)의 엘 만수리아 모스크 등을 꼽을 수 있다.

4)힌두 종교건축물

인도에서 태어난 힌두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다. 주신(主神)인 시바신을 모신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체로 첨탑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인도에는 카주라호(Khajuraho)사원, 파타다칼(Pattadakal)사원, 엘레판타 석굴사원(Elephanta), 브리하디스바라 사원(Brihadisvara), 엘로라(Ellora) 석굴(제13굴에서 제29굴까지)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프람바난 사원(Prambanan)이 있고, 캄보디아에는 앙코르 와트(Ankor Wat)사원이 있다.

5) 불교관련 문화유산

불교는 인도에서 일어나 동북아시아(중국·한국·일본)와 동남아시아(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로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유산의 형태는 석굴(cave), 불탑(stupa), 사찰(Temple), 수도원(monastery) 등 다양하다. 벽화나 석각(石刻), 석불(石佛) 등을 간직하고 있는 석굴사원으로는 아잔타 석굴(Ajanta, 인도), 엘로라 석굴(Ellora, 인도), 담불라 석굴(Dambulla, 스리랑카), 돈황의 막고굴(莫高窟)(또는 천불동(千佛洞), 중국), 석굴암(한국) 등이 있으며, 불탑으로는 그 시원의 형태를 보여주는 탁실라(Taxila, 파키스탄)의 다르마라지카(Dharmarajika)와 산치 대탑(Sanchi, 인도) 그리고 3층 구조의 피라미드 형태인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인도네시아)이 있고, 사찰로는 법륜사(法隆寺)(일본), 불국사(한국) 등이, 불교수도원 유적으로는 탁티바히(Takh-i-Bahi, 파키스탄)와 탁실라(Taxila, 파키스탄)의 줄리앙(Joulian), 파하르푸르 수도원(Paharpur, 방글라데시)이, 불교 성도(聖都)로는 칸디(Kandy 스리랑카)가, 불교도시유적으로는 수코타이(Sukhothai, 태국)와 아유타야(Ayutthaya, 태국)가 있다.

7. 기념물

어떤 특정시대의 성과물 또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조영한 건축물이나, 축조물 또는 예술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시대의 성과물로는 오랑지의 개선문과 로마식 극장(Roman Theatre & the Triumphal Arch of the Orange, 프랑스), 아를르의 로마·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념건조물군(Roman & Romanesque Monuments of Arles, 프랑스), 폰 뒤 가르(Pont du Gard, 프랑스, 로마시대의 다리), 트리에르 로마시대 기념건조물군(Trier, 프랑스), 세고비아의 대수도(Aqueduct in Segovia, 스페인, 로마식 水道), 엘젬원형극장(A-mphitheatre of El Jem, 튀니지, 로마시대). 明·淸시대의 건조물인 무당산(武當山) 유적(중국), 신드(Sind) 문명의 도시 및 묘지 유적인 타타(Thatta, 인도), 러시아 전통과 러시아 정교회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노브고로드 역사기념물(Novgorod, 러시아)과 블라디미르·수즈달(Vladimir & Suzdal)의 백악(白堊)기념건조물군, 중세 슬로바키아의 군사·정치·종교용 건축물의 앙상블인 스피스키 흐라드 문화유적(Spiscky Hrad & its Associated Cultural Monuments), 그리스식 욕탕·신전 등이 어울려 있는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Hierapolis-Pamukkale, 터키), 중세 아프리카 무역항이 킬와 키시와라·송고 무아라(Kilwa Kisiwara & Songo Muara, 탄자니아), 순례(巡禮)의 길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의 길(Route of Santiago de Compostela, 스페인), 스페인 무데하르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테루엘 건축물군(Teruel, 스페인)힌두 왕국의 존재를 알리는 함피 기념물군(Hampi 인도) 등이 있다.

한편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거나 기념해서 세운 건조물 또는 유적으로는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로 발견을 기념해서 세운 벨렝탑(Tower of Belem, 포르투갈), 몽골족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한 팔만대장경(한국), 나치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Auschwitz Concentration Camp, 폴란드), 아이티의 독립선언을 기념하여 조영한 아이티국립역사공원(Haiti, 아이티), 외세의 침략을 퇴치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명(碑銘)인 마다라 리데르(Madara Rider, 불가리아), 산업혁명의 현장이 아이언브리지 고지(Ironbridge Gorge, 영국), 바우하우스 건축운동이 일어난 현장인 바우하우스·바

이마르·뎃사우(Bauhaus & its Sites in Weimar & Dessau, 독일), '95개 논제'를 내걸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와 아이스레벤의 루터 관련 기념물(Luther Memorials in Eisleben & Wittenberg, 독일), 미국의 독립과 관련되는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과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그리고 원폭투하 현장인 히로시마 평화공원(일본) 등이 있다.

8. 궁전

궁전은 최고 정치권력자의 집무 및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오면서 상당수 파괴되어 중세이후의 것들만 세계유산리스트에 등재되어있다.

궁전은 대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인데다 뛰어난 조경, 그리고 내부에는 수준 높은 동산 문화재(그림, 조각, 타피스리, 공예품 등)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 지금은 대부분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의 궁전으로는 明·淸시대의 正宮이었던 자금성(紫禁城)과 淸 황제의 별궁이었던 승덕산장(承德山莊), 그리고 티베트의 포탈라 궁전(Potala)이 있고, 일본의 것으로는 역사도시 교토에 있는 二條城과 京都御所 등이 있다.

서양의 궁전으로는 크레믈린궁전(Kremlin, 러시아), 베르사이유 궁전(Versailles, 프랑스), 퐁텐블로 궁전(Fontainebleau, 프랑스), 스타니슬라스 궁전(Stanislas, 프랑스), 쉐nbrun 궁전(Schönbrunn, 오스트리아), 뷔르츠부르크 궁전(Wurzburg Residence, 독일), 포츠담의 상수시 궁전(Palaces & Parks of Potsdam & Berlin, 독일), 무어족이 이베리아 반도에 세운 알람브라 궁전(Alhambra, 스페인), 북유럽 궁전건축양식을 대표하는 드로트닝홀름 궁전(Drottningholm, 스웨덴), 영국의 블렌하임 궁전(Blenheim)과 웨스트민스터 궁전(Westminster), 로마시대의 궁전유적터에 복원된 디오클레티안 궁전(Diocletian, 크로아티아)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궁전으로는 유일하게 아보메이 궁전(Abomey, 베냉)이 있다.

9. 성벽

성벽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순수한 방어벽으로서의 성벽(Wall)이 있는가 하면, 성곽도시(Walled City)가 있고, 요새(Fort, 또는 Fortress)와 성(Castle)도 있다.

성벽의 예로는 만리장성(萬里長城)(Great Wall, 중국), 하드리아안 성벽(Hadrian Wall, 영국)이 있고, 성곽도시로는 예루살렘(Jerusalem, 예루살렘), 시밤(Shibam, 예멘)이 있으며, 수원(水原)의 화성(華城)과 같은 요새의 예로는 라호르성(Lahore, 파키스탄), 바홀라 성(Bahla, 오만), 아그라성(Agra, 인도), 히메지 城(Himeji-jo, 일본), 푸에르토리코 성(Puerto Rico, 미국), 수오멘리나 성(suomenlinna, 핀란드), 포트벨로·산 로렌소 성(Portobelo & San Lorenzo, 파나마), 가나성(Ghana, 가나), 앙그라 도 에로이스모(Angra do Heroismo, 포르투갈) 등이 있다.

요새화된 궁전을 뜻하는 城의 예로는 그윈네드 킹 에드워드 성(Castles of King Edward in Gwynedd, 영국),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Augustusburg, 독일), 몬테 성(Monte, 이탈리아), 샹보르 성(Chambord, 프랑스), 그리고 요르단 사막속의 암라 성(Qasr Amra, 요르단), 사하라 사막 속의 베니하마드 요새(AlQalá Beni Hammad, 알제

르) 등이 있다.

10. 묘

묘는 사자(死者)를 위한 영원한 집이다. 대체로 '지하에 구축되기 때문에 파손을 면할 수 있어 고대의 것도 많이 남아있다. 세계유산리스트에 등재된 묘에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기(墓)가 집중되어 있는 '사자(死者)들의 도시(都市)'(Necropolis)도 있다. 피라미드 형태의 특이한 지상구조를 하고 있는 것도, 화려한 채색벽화를 간직한 것도, 비석이나 조각 등으로 묘 주위를 장식한 것도 있다.

가장 오래된 네크로폴리스로는 단연 카이로 일대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일괄 지정되어있다. 이를하여 피라미드 고분군(Pyramids Fields from Giza to Dahshur, 이집트), 다음으로는 그 형태를 지상에 드러내지 않았으나 60여 기(墓)에 이르는 고대 이집트 왕들의 고분이 집중되어 있는 룩소르의 왕가의 계곡(Ancient Thebes with its Necropolis)를 꼽을 수 있다.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Malta)에는 할 사플리에니 히포게움(Hal Saflieni Hypogeum)이라는 지하묘실이 있고, 불가리아의 카잔락(Kazanlak)과 스베슈타리(Sveshtari)에는 아름다운 채색벽화가 그려져 있는 트라키아 왕묘가 있으며, 중국 서안(西安)에는 실물크기의 토용(土俑)을 배치시켜 놓은 병마용갱(兵馬俑坑)이 있고, 터키의 산토스·레툰(Xanthos-Letoon)에는 헬레니즘 양식의 묘와 석비가 있고, 레바논의 티르(Tyre)의 죽은자의 도시(City of the Dead)에는 로마식 석관(石棺)이 대거 보존되어 있다.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 있는 고봉(高峰) 넴루트 다그(Nemrut Dag)에는 인물석상으로 장식해둔 안티오코스 1세의 영묘가 있으며, 콜롬비아에는 거대한 지하묘소군인 티에라 덴트로 국립고고학공원(Tierradentro)이 있고, 인도에는 후마윤 왕묘(Humayun's Tomb)와 '백색의 진혼가'라 부르는 타지마할(Taj Mahal)이 있다. 또 중국 山東반도에는 孔子의 묘인 공자묘(孔子墓)가 있다.

III. 세계 문화유산 속의 우리 문화유산

이제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을 세계의 문화유산 속에서 조명해 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 먼저 우리 문화유산의 성격을 살펴보자.

석굴암은 불교건축물이며, 대장경 및 판전 또한 불교문화재다. 대장경을 제작케된 사상적 배경이나, 목판에 새겨진 내용은 분명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불교문화재란 점에서만 접근하면 그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인쇄문화재라는 측면과 함께 몽골 병란을 불법(佛法)의 가피력(加被力)으로 막아보겠다는 고려인의 강한 자주의식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필자는 기념물로 분류코자 한다.

종묘 또한 사상적으론 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긴하나 조상숭배(비록 왕실의 것이지만)는 인류 보편적 신앙 형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건축물로 분류했다. 1997년 12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은 성곽으로, 창덕궁은 궁전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같은 분류에 의거,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의 문화유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 세계 불교 석각예술의 정화(精華), 석굴암

석굴암은 불교 건축물이다.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불교관련 문화재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굴, 불탑, 사찰, 수도원, 성도, 도시유적 등이 있으며 그 분포는 동아시아 각국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石佛寺)다. 바위를 파서 조영한 인공석굴이 아니라 지상에다 판석을 쌓아 축조한 축조석굴사원으로서 구조는 전방후원(前方後圓)형이며, 용도는 차이트야(탑원(塔院): 예배공간)이다. 창건년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80년이 지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이 완숙되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8세기 중엽이었다.

위치는 신라인들이 불국토라 부르던 경주의 토함산 중턱이고, 동해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재질은 우리 땅에 흔한 화강암. 이 단단한 석재로 석실을 꾸미고, 그 내부 중심에는 석가여래 본존상(입체조각)을 세우고, 원형의 벽면에는 십일면관음상, 10대 제자상, 범천과 보살상 등 총 39체에 이르는 부조상(평면조각)을 새겨 놓았다. 한마디로 석조건축과 석각예술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과 그 형태나 용도면에서 가장 유사한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과 엘로라 석굴, 스리랑카의 담블라 석굴 그리고 중국 둔황(敦煌)의 막고굴(莫高窟)이 있다.

아잔타 석굴은 ①인도 서북부의 건조지역인 데칸 고원의 용암대지에 위치해 있으며 ②천연의 바위벽을 파내어 조영한 인공석굴이고 ③석굴 내부에는 계란을 세워놓은 모양의 스투파(초기의 것)와 불상, 그리고 스투코(stucco) 형식의 각종 부조상과 프레스코 기법에 의한 채색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④불상은 완전 입체조각이 아니라 부조의 성격이 강한 半입체조각이며 ⑤표현된 불상은 이지적인 간다라 스타일이 아니라 육감적인 마투라스타일을 취하고 있어 매우 인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⑥조영시기는 이른 것이 기원전 2세기, 늦은 것은 7세기로 약 9백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4세기 이후 스투파를 대신하여 불상을 안치하면서 그후 3백년간 집중적으로 조영되었고 ⑦조성된 석굴의 수는 29개로 ⑧여기에는 예배공간인 차이트야와 수도공간인 비하라(승원(僧院))가 공존하고 있다.

엘로라 석굴은 ①아잔타와 같이 데칸 고원 용암대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②불교 석굴 뿐만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이 이웃하고 있고 ③그중 불교 석굴사원은 12개로서 6~8세기에 조영되었으며 ④내부에는 채색벽화는 없고 불상과 부조 위주이며 ⑤그 표현 기법은 아잔타와 거의 동일하다.

담블라 석굴은 ①스리랑카 최대의 석굴 사원으로 ②용도는 승원이며 ③내부에는 157점의 불상과 2,100㎡에 이르는 채색벽화가 그려져 있다.

한편 둔황(敦煌)의 막고굴(莫高窟)은 ①아잔타·엘로라 석굴과 같이 역시 건조지대인 타클라마칸 사막 지대에 위치하며 ②천연의 바위벽을 파내어 만든 인공석굴이며 ③5층 구조로 원래는 1천개가 넘는 석굴이 조성되었으나 지금은 492개가 남아 있는 대형석굴군으로서 ④석굴 내부에는 채색 진흙 불상을 안치하고,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레스코 채색벽화로 장식하였으며, ⑤탑원과 승원이 공존하며 ⑥4세기 북위(北魏)시대에 시작되어 元대에 이르기까지 1천년간에 걸쳐 조영되었다.

석굴은 사찰보다 일찍 등장한 불교 건축물로서 인도와 중국에서 크게 발달되었다. 그

곳의 기후 조건 등으로 하여 장시간의 예배와 수도의 공간으로 석굴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아잔타·엘로라 석굴사원은 데칸 고원에 산재한 수많은 석굴사원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고, 그런 이유로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막고굴 역시 중국에 불교가 처음 유입되었던 길목인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에 있는 많은 석굴사원(예: 투르판의 베제크릭, 쿠차의 키질석굴 등) 가운데 최고·최대의 석굴사원이다.

인도와 중국의 석굴사원의 특징으로 ①인공석굴이며 ②내부에는 스투파, 불상, 스투코, 채색벽화 등이 새겨지거나 그려져 있고 ③하나의 석굴이 아니라 다수의 석굴이 한곳에 집중되어 석굴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④용도면에서도 탑원과 승원이 섞여있고 ⑤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되었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은 ①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②일시에 집중적으로 축조한 ③전방후원형 구조의 ④작은 ⑤석각의 ⑥탑원 형식인 석굴암과 비교해 보면 석굴암은 소박하고, 단순하며 단색적(monochrome)이고 또 집약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뒤집어말하면 석굴암의 건축 및 조각은 매우 질서정연하며 함축적이고, 불교가 지향하는 무색계(無色界)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아잔타·엘로라·막고굴은 화려하고, 다양하며, 다채색(polychrome)이며 분산적이다. 그래서 그만큼 산만하고 혼란스럽다

석굴암이 함축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인도나 중국, 특히 중국의 막고굴과 용문(龍門)석굴, 운강(雲崗)석굴 등의 조영경험을 창조적으로 수용한데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무채색 성향과 소박한 크기는 화강암이라는 재질의 특성에 연유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민족의 심성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며, 조각에 흐르는 유려한 선묘와 터치는 사회적 안정과 문화적 완숙에서 나온 여유 그리고 신라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석조건축물인 석굴암과 인공동굴인 인도·중국의 석굴사원과 비교할 때 빼놓아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조역학의 문제이다.

인공석굴의 경우, 천연의 바위벽을 파내어 그 속에 내부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 천장의 무게와 기둥과의 관계, 힘의 분산 등과 같은 구조역학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려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둥근 돔형 지붕을 얹은 석굴암은 구조역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어디 구조역학뿐인가. 통풍과 온도, 습도 등도 고려해야 했고, 또 이 모든 것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켜야 했으니 최고의 과학과 기술이 동원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과학과 기술, 철학과 예술이 하나될 때 나타나는 논 플러스 울트라(non plus ultra)의 조화의 세계는 바로 불교, 아니 석굴암이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이기도 했다.

석굴암은 절대 크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장되어있다. 통일신라의 장인들은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해낸 석각예술의 기예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토양에 맞는 세계 최고의 불교 석각예술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2. 유일한 인쇄관련 세계문화유산, 대장경과 판전

대장경과 판전은 각각 별개의 것이나 이 둘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둘은

떨어져서는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장경은 판전과 만남으로써 오랜 세월, 아무탈 없이 지낼 수 있었고, 판전 또한 대장경을 만나서 보금자리로서의 제기능을 120%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는데 있어서도 이같은 관계가 작동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은 동산(動産)문화재는 취급하지 않고 도시유적, 건축물, 건조물, 문화조경 등 부동산(不動産)문화재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민속이나 의례 그리고 그림이나 조각, 공예 등과 같은 민속학적·동산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문화재와 결합됨으로써만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철저히 장소 중심이다. 팔만대장경이 만약 판전이라는 특수 목적의 건축물이 없어 일반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신 최근 유네스코가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장경과 판전은,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같은 특수한 관계를 이룩해 내었다는 점에서 대장경과 판전의 문화적 우수성은 입증되는 것이다.

대장경은 분명 불교문화재이다. 그러나 불교 관련 세계문화유산 속에는 대장경·판전과 유사한 형태나 성격을 가진 문화유산은 없다. 대장경이나 판전은 예배의 공간도, 수도의 공간도 아니며 조각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장경은 ①부처가 직접 설파한 경(經)과 율(律) 그리고 그에 대한 주석인 논(論) 등 일체를 집합한 총서로서 ②몽골군의 침입을 받은 고려가 그들을 퇴치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룩해 낸 정신적 소산으로 ③총 81,258경판, 5,300만자의 글자를 한 자의 오자나 탈자가 없으면서 또 시종일관 동일한 서체를 칼로 새긴 목판 인쇄물이며 ④판전은 목판의 장기보존에 적당한 위치와 토양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 통풍 등을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목조건축물이다. 그래서 대장경은 인쇄관련 문화재이다. 그러나 이에 비교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도 없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찍어낸 ‘42행 성서’도 동산문화재이기에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며 대영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로세타스톤(Rosseta Stone,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케 한 단서)도 세계유산이 아니다.

대장경과 판전은 불교문화재이나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세계유산은 없으며, 인쇄문화재라는 측면에서도 비교될 수 있는 세계유산이 없다. 그만큼 특이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이같은 대장경을 제작하고 또 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인쇄문화의 종주국이라 할 것이다. 현존 세계(世界)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8세기초))과 역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도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3. 한국적 건축미학이 돋보이는 종묘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일년에 몇차례 제례가 행해지고 있는 제사용 건축물이다. 중심 건축물인 정전은 정면 19칸, 측면 3칸의 좌우가 매우 긴 건물로서 단순한 맞배지붕 구조로 하여 꾸밈없고 정연하며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는 유교가 지향하는 덕목인 중용과 절제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묘는 유교건축의 특성을 살렸다기 보다는 제사공간으로서의 특성을 더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균관의 대성전(大成殿)이나 향교 건축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속에서 종묘와 유사한 것을 찾아본다면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묘(孔廟)와 태산(泰山), 그리고 日本의 嚴島神社 정도가 있다.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는, 공자의 고향으로 그의 사당과 묘 등으로 구성되는 광대한 공림(孔林)이 있다. 기원전 5세기 노(魯)의 애공(哀公)에 의해 시작된 ‘학문의 황제’ 공자에 대한 제사가 공묘(孔廟)에서 행해진다. 공묘는 학문의 황제의 지위에 걸맞게 왕궁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北京의 자금성(紫禁城)의 축소판이다. 영성문(櫺星門)에서 시작하여 6개의 문을 차례로 지나면 대성문(大成門)에 이르고 이어서 행단(杏壇)과 대성전(大成殿)이 있는 중심공간에 닿게 된다. 중심건물인 대성전은 길이 54m, 폭 34m, 높이 32m의 위풍당당한데 그 형태는 자금성의 태화전(太和殿)을 빼닮았다. 대성전 정면에는 지성선사(至聖先師)의 형액이 걸려있고 내부에는 孔子의 소장(塑像)이 안치되어 있다. 매년 석전대제(釋奠大祭)가 행해진다. 중국 오악(五岳)의 필두(筆頭)인 태산(泰山)은 역대 황제가 천제(天帝)를 향해 봉선(封禪)의식을 올리던 성산(聖山)으로 해발 1,520m의 산 전체가 사직의 보고다. 봉선의식이 행해지던 공간을 대묘(岱廟)라 하고 그 중심건물은 천축전(天貺殿)이다. 천축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종루(鐘樓)와 고루(鼓樓), 그리고 침궁(寢宮)과 한백원(漢柏院), 동어좌(東御座)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천축전은 길이 48.7m(정면 9칸) 폭 19.8m, 높이 22.3m로 석대좌 위에 있는데 그 형태는 공묘(孔廟)의 대성전(大成殿)과 같은 궁전양식이다. 건물 내부에는 동악태산신(東岳泰山神)의 순행도(巡行圖)가 걸려있다.

중국2대 제사 건축물인 대성전과 천축전은 종묘의 정전과는 달리 웅장하고 화려하며 위풍당당하다. 외형상 2층구조다.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를 하고 있다.

일본의 嚴島神社는 廣島 교외의 작은 섬에 있는데 만조때에는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신(主神) 市杵島姬命(이시기시마히메노미고토) 등 많은 신을 모시는 신사로서 본사(本社)를 중심으로 각 섭사(攝社)와 능(能)무대, 고무대 등 20여체에 달하는 사전(社殿)은 길이 273m의 낭하로 연결되어 있다. 목재건축물로서 모두 붉게 칠해져 있으며 노송나무 껍질을 지붕으로 얹어 화려하다. 바다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大鳥居(오오토리이)가 있어 신사임을 알리고 있다. 여기서는 연년무(延年舞)란 이름의 신사(神事)(제의)가 행해진다

종묘의 예술적·건축적 특성은 이웃나라의 제사공간과 비교해 보면 아주 뚜렷하게 잡힌다. 그것은 한마디로 유장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궁궐건축의 전범(典範), 창덕궁

조선시대의 궁궐건축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일한 궁궐인 창덕궁은 3門3朝의 공간 배치와 후원의 조경이라는 중국식 궁궐건축의 기본적인 컨셉(concept)을 따르고 있다.

궁궐은 왕조시대 최고 권력자의 집무 및 생활공간으로 권위를 나타내어야 하고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하기에 위치선정이나 공간배치, 건축, 장식 등에서 다른 건축물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至誠)으로 세우는 종교건축물과도 자연 구별될 수밖에 없다.

조선조 궁궐건축은 중국의 것을 따르고 있는데 현존 중국의 대표적 궁궐은 자금성(紫禁城)이다. 명·청 시대의 정궁인 자금성은 현존하는 중국의 최고·최대의 궁궐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금성과 창덕궁을 비교해보면, 3문3조 구조와 후원의 조경이란 점에선 닮아 있으나 창덕궁은 담장이 낮고 부드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다 자금성과는 달리 궁궐 내부 곳

곳에 녹지공간(특히 비원(秘園))을 두었고 또 자금성의 엄격한 직선배치 개념을 사실상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후원에도 조각과 같은 장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창덕궁 건축에는 조선왕조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적극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배치와 활용이란 점에서는 일본의 역사도시 京都(세계문화유산)에 있는 천황(天皇)의 거소였던 경도어소(京都御所)와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건축형태란 측면에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궁궐 건축은 동일한 컨셉 위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 표현에선 각국의 문화적 전통과 심성,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 등으로 하여 이처럼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되었다.

시야를 넓혀 서양 궁전건축과 동양 3국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또 다른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유산인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과 퐁텐블로 궁전, 독일의 산 수시 궁전, 오스트리아의 쉐브룬 궁전 그리고 스웨덴의 드로트닝홀름 궁전 등을 보면 하나같이 ①광대한 토지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②백성들이 사는 도심과는 떨어져 고립돼 있으며 ③하나의 복합건물을 궁전으로 삼아 그 속에 모든 기능을 집중시키고 ④나머지 넓은 공간은 왕의 휴식 및 놀이(사냥 등)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에 비해 동양에선 백성들이 사는 공간과는 높은 담장으로 구획하되 왕궁은 도성 한 가운데에 위치했고, 한 건물에선 특정한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여 궁전내에다 많은 전각을 세웠다. 엄격한 공간분할(space segmentation)을 꾀했다. 이는 특정 공간에의 접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서양에선 한 건물(궁전)내에 접견실, 집무실, 서재, 연회장, 볼룸, 침실, 식당 등 모든 공·사적 기능 공간을 공존시킴으로서 동선(動線)의 절약과 함께 접근의 용이함을 가져왔다. 왕이 덜 권위적으로 보이게끔 만들기도 했다.

한편,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서양 건축에선 그 시대를 풍미하던 건축양식-주로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을 따랐는데 반해 동양에선 그런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 거의 동일한 구조, 동일한 형태가 전통처럼 고수되었다.

5. 조선 성곽건축의 집대성, 화성

수원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화성(華城)은 조선조 정조(正祖)대왕이 성곽을 축성하여 새로이 건설한 신도시(Walled City of Hwasung)의 명칭이면서, 그 도시를 두른 성벽(Fortress of Hwasung)의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번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화성은 성벽 내부의 도시공간은 포함되지 않고 구조물인 성벽만 해당된다.

성 또는 성곽은 고대국가 시절부터 자연적·인위적 외침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되어 온 인위적인 구조물로서 흙벽돌, 돌, 나무, 흙(토성 또는 판축기법에 의한 성) 등이 재료로 사용되었다.

고대도시는 대부분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도성(都城)이라 할 수 있고, 서양에선 높은 곳에 방어벽을 구축하여 도시를 건설하였기에 아크로폴리스(acropolis) 형태를 취했다. 세계문화유산 속에도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터키의 하투사(옛 히타이트 제국의 도읍지) 등이 그 좋은 예로 포함되어 있다.

화성은 그 성격상 읍성(邑城)이며, 형태상으로 보면 요새라 할 수 있다. 불에 구운 흙벽돌을 재료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성의 구성요소인 성문과 수문, 암문, 옹성, 산대, 체

성, 여장, 치, 적대, 포대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한국 성곽 건축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 후대에 축성되었기에 그랬기도 했지만 그 설계 및 축성과정에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 새로운 건축법과 새로운 재료, 신기술이 도입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재료와 기법이 도입되었기에 축조기간이 단축되었고, 소요경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방어기능을 증대시켜 실용성도 높였다. 거기에 주위 환경과의 조화도 꾀하여 미학적 성과도 거두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외국의 다른 성과 비교하여 문제가 될수 있는 ‘일천한 역사’라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화성은 중국의 만리장성과는 다르며, 독일·프랑스의 심산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캐슬(castle)과도 다르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은 웅장하고 견고해 보인다는 특성은 있으나 외적방어라는 실용성과 성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결하고 있어 화성과 비교될 수 없다.

또 화성은 그 설계도와 함께 축성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의궤(儀軌)’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성도 따를 수 없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화성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이 도시를 위해 태어난 것이기에 성만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성벽을 별도의 구조물로 인식하지 말고 그 내외에 있는 도시와의 연관성 속에서 화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6. 결어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평가해 주었음을 뜻한다. 이처럼 세계문화유산에는 그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깊게 배여있기 때문에 상호간 질적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런 문화유산에서 표현된 정신세계, 또 그들의 미학(美學)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할 것이다. 필자도 그런 생각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의 문화유산과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국가별 보유현황

총94개국 399점

(‘97.10월현재)

아시아·태평양		유럽	
국가명	보유점수	국가명	보유점수
호주	4	아르메니아	1
방글라데시	2	오스트리아	2
캄보디아	1	불가리아	7
중국	13	크로아티아	2
인도	16	사이프러스	2
인도네시아	3	체코	6
이란	3	덴마크	2
이라크	1	핀란드	4
일본	6	마케도니아	1
요르단	2	프랑스	21
예루살렘	1	그루지아	3
라오스	1	독일	18
레바논	4	그리스	14
네팔	1	바티칸	1
뉴질랜드	1	헝가리	3
오만	2	아일랜드	2
파키스탄	5	이탈리아	17
필리핀	2	리투아니아	1
한국	3	룩셈부르크	1
스리랑카	6	몰타	3
시리아	4	네덜란드	2
태국	3	노르웨이	4
터키	8	폴란드	5
우즈베키스탄	2	포르투갈	8
베트남	1	루마니아	3
예멘	3	러시아	8
		슬로바키아	3
		스페인	21
		스웨덴	8
		스위스	3
		우크라이나	1
		영국	12
		유고	3
		알바니아	1
26	98	34	193

아프리카		아메리카	
국가명	보유점수	국가명	보유점수
알제니	7	아르헨티나	1
베냉	1	볼리비아	3
이집트	5	브라질	6
이디오피아	6	캐나다	5
가나	2	칠레	1
리비아	5	콜롬비아	4
말리	3	쿠바	2
모로코	4	도미니카공화국	1
모잠비크	1	에콰도르	1
모리타니아	1	엘살바도르	1
세네갈	1	과테말라	3
튀니지	6	아이티	1
탄자니아	1	온두라스	1
짐바브웨	2	멕시코	14
		파나마	1
		파라과이	1
		페루	7
		미국	8
		우루과이	1
		베네수엘라	1
14	45	20	63